



[라이프] 고물가·잔테크에 판 커진 중고시장 유통공통도 '가세' 니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과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

수소·전기차는 달리고 싶다

-규제혁파의 시간-

질주하는 친환경차... 규제 혁신·인프라 구축으로 속도 붙여야

전기차·수소차 전 세계적 가파른 성장세 각종 규제·부족한 인프라 등에 경쟁력↓ 제도 개선 등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 방안 강연

전기차와 수소차를 중심으로 전 세계 친환경차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각국의 탄소 중립 강화 방침으로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을 뛰어넘어 주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완성차 업체는 물론 이와 관련된 부품업체의 경쟁에 따른 기술력 강화로 승용부터 상용차까지 2019년부터 매년 20%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2019년 200만대에서 2021년 650만대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2022년에는 1000만대가 넘는 전기차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로 불리는 수소차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2022년 6만대에서 2027년 100만대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시장은 친환경차에 대한 규제와 턱없이 부족한 충전 인프라, 정부 지원 부

족 등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는 모습이다.

이에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수소·전기차는 달리고 싶다-규제혁파의 시간'을 주제로 21일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을지로5가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리는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포럼'은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이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적 진화와 제도'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친다.

이종욱 회장은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로 국제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금발심의 중소서민금융분과 위원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삼성물산 사외이사, 저축은행중앙회 전문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으로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모빌리티 생태계의 확장규제 혁신, 그리고 신경제사의 관점에서 투자 및 금융 구조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이어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전기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포럼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40~14:00
14:00~14:10	축사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10~14:20	오픈닝스피치	양지현 국민대학교 미래모빌리티학과 주임교수
14:20~15:00	기조강연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적 진화와 제도
15:00~15:40	강연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및 전기차 보급정책
15:40~16:20		권낙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센터장 :수소모빌리티 및 수소충전소 규제 개선
16:20~17:00		박재범 포스코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배터리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방안

차 보급정책' ▲권낙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대외협력센터장의 '수소모빌리티 및 수소충전소 규제 개선'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의 '배터리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한다.

또 국회 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와 양지현 국민대학교 모빌리티학과 주임교수의 오픈닝스피치도 예정돼 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술 성장 위해 규제 개선해야”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은 국내 기업의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대해 기조 강연을 한다. 글로벌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적 성장과 그에 따른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 회장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강화하면서 미래 모빌리티는 친환경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에 맞는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 구축마련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의 전략을 제시한다.

이 회장은 “최소 규제를 위해 입법의 양보다 질로 평가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통합 규제 노력과 규제의 질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필요”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및 전기차 보급정책에 대해 강연한다. 우리 정부가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정책 동향과 우리나라

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다. 특히 국내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해 전기차 보급 속도에 따른 충전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분석할 예정이다.

김 상무는 ▲탄소중립 정책동향 ▲전기차 보급의 전제와 최근 여건 동향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현황과 해결방안 ▲단계적 전기차 보급 전략 추진방안 등에 대해 설명한다.

김 상무는 “충전인프라 부족이 전기차 보급 속도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와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충전인프라 구축 로드맵을 수립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차 경쟁력 확보 전략은”

권낙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센터장



권낙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대외협력센터장은 수소 모빌리티 및 수소충전소 규제 개선에 대해 강의한다. 수소 에너지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로 현재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 산업을 이끌고 있다.

권 센터장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수소차 보급과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공유한다. 세계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미래차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권 센터장은 이번 강연에서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2025년 미래차 중심사회·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공유한다. 특히 수소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과 충전 기술력 강화 인센티브 지원 등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의 부재에 대한 정책 방향성 제언을 발표한다.

“배터리 경쟁력, 답은 ‘재활용’”

박재범 포스코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배터리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강연한다. 배터리 밸류체인은 핵심 원료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높은

가격, 탈중국 소재 공급망 구축 움직임, 친환경을 비롯한 ESG 대응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배터리 재활용이 중요하며 주요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박 수석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국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생태계 강건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손흥민·이강인 합류한 벤투호…1시간30분 '구슬땀' /사진 뉴스스
▲'황선홍호' 강성진·백상훈·황재찬 낙마…최기훈 등 대체 발탁

▲토틸넘 골키퍼 로리스, A매치·북런던 더비 앞두고 '부상 악재'
▲세네갈 케이타, 도핑 위반으로 월드컵 출전 위기



▲조용만 문체부 2차관 “아시안컵, 한국 유치에 유리한 점 많아”
▲'골프계 우영우' 이승민, 소속사 구했다…해의 진출 도전 /사진 뉴스스